

K-반도체기업, 현금 160조 쌓았다... D램·로봇 등 투자 확대

반도체 시장 호황에 현금여력 늘어
삼성전자 일평균 1000억 기술투자
SK하이닉스 생산시설 확대 주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시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현금 여력이 크게 늘고 있다. 늘어난 자금은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투자로 이어지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합산 약 16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약 125조8000억원, SK하이닉스 약 34조9000억원 수준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메모리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확보한 자금을 생산시설 확충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53조 6000억원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투자만 46조원을 넘는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공정 전환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서는 생산능력 확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D램 라인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 생산라인 확보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됐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은 약 37조 7000

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하루 평균 약 1000억원이 기술 개발에 투입된 셈이다.

회사는 AI 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나선 데 이어 차세대 D램 공정 개발도 진행 중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사업 확대에도 나섰다. 최근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며 관련 사업을 본격화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에 결합해 차세대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

략이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확장현실(XR)기기를 개발하며 주요 제품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조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조 기업 플렉트그룹 인수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대형 건물, 산업시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냉각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사의 현금 및 현금

성 자산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전년(약 14조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회사는 든든한 실탄으로 생산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3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약 21조6000억원은 신규 시설에 투자한다.

청주에는 약 19조원을 투입해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고성능 메모리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HBM 후속 제품 개발과 함께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개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SK하이닉스 R&D 공정 담당 부사장은 최근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6' 기조연설에서 "신제품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초미세 공정 개발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며 "AI 기반 연구개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인도 최적화 공조 솔루션 선보

인도 HVAC 전시회 'ACREX' 참가
"B2B 분야 인도 국민기업으로 도약"

LG전자가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과 부품 솔루션을 앞세워 '인도' 국민 브랜드' 도약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냉난방 공조(HVAC) 전시회 'ACREX 2026'에 참가해 완제품과 핵심 부품을 아우르는 종합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빠른 경제 성장으로 현지 가전제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존 에어컨 및 공조 제품 전시존 외에 처음으로 부품 솔루션 전용 부스도 별도 마련하며 기업 간 거래(B2B)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한 컴프레서 신제품들은 불안정한 현지 전력 공급망과 혹독한 기후 특성, 강화되고 있는 현지 당국의 에너지 효율 규제 등을 고려해 ▲뛰어난 부



LG전자가 12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공조 전시회 'ACREX 2026'에서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작동 중 정전으로 인한 급정지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적용한 컴프레서 부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LG전자

품 내구성 ▲고효율 ▲탁월한 냉방 및 냉장 능력 등을 두루 갖췄다.

인도 현지 시장에 특화된 HVAC 솔루션도 선보였다. 혹서부터 혹한까지 다양한 인도의 기후대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VRF) '멀티브이 5(Multi V5)'가 대표적이다. 독자 개발한 인버터 컴프레서 기반의 3단 압축기술과 냉난방 운전 시 최적의 냉

매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인도 LG전자 전홍주 대표는 "인도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 부품 솔루션을 통해 기업 고객에게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B2B 분야에서도 국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美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 개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본격 공략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격전지인 미국에서 무인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며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석권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Motional)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Uber)와 함께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 지역은 ▲라스베이거스대로 주변 지정 호텔 ▲다운타운 ▲타운스퀘어 상업지구 등이다.

모셔널과 우버는 2022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수백만 이용자 네트워크를 결합하며 자율주행 대중화를 가속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초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버이츠 배달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연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라이드헤일링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시범 서비스 중인 모셔널 아이오닉 5 로봇택시

/현대차그룹

모셔널의 아이오닉 5 로봇택시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U.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 인증을 받은 SAE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 단계에서는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량 운영자가 운전석에 탑승한다.

모셔널은 시범 서비스 단계를 통해 이용자 피드백 등을 확보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반영해 올해 말부터 완전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사운드바 시장 점유율 1위

금액 기준 21.5%·수량 기준 19.7%

삼성전자가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오디오·비주얼 분야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 21.5%, 수량 기준 19.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14년부터 이어온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사운드바는 몰입감을 높이는

서라운드 음향과 편리한 연결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TV 스피커와 사운드 기기를 동시에 활용해 풍부한 음향을 구현하는 '큐 심포니(Q-Symphony)' 기능도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국 IT 리뷰 매체 AV포럼은 삼성전자 프리미엄 사운드바 'HW-Q990F'를 "음악과 영화 모두를 위한 또 하나의 뛰어난 사운드바"라고 평가했다.

미국 IT 리뷰 매체 테크에어리스도 'HW-Q990F'에 대해 "뛰어난 삼성 T

V와 함께 사용할 최고의 사운드바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프리미엄 사운드바 'HW-Q990F'의 후속 모델인 'HW-Q990H'와 와이파이(Wi-Fi) 스피커 '뮤직 스튜디오 7.5' 등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주거 공간과 청취 환경에 맞춘 오디오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몰입감 있는 음향과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 인공지능(AI)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사운드 기기를 통해 어떤 공간에서도 최고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르노코리아 2027년형 '아르카나' 출시

르노코리아가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하며 상품성을 강화한 2027년형 '아르카나'를 선보였다. 또 3월 한 달간 아르카나 1.6GTe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년 무이자 및 '새출발 특별 지원 혜택'도 함께 실시한다.

15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2027년형 아르카나는 연식 변경을 통해 하이브리드 E-Tech와 1.6GTe 모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하이코닉' 단일 트림으로 구성됐다. 사양을 최적화하고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고객 만족도가 높

은 1열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인기 선택 사양인 '카멜 브라운 인조 가죽 시트 패키지'의 가격을 낮춰 선택의 부담을 줄였다.

2027년형 아르카나는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을 기본으로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더하고 연비 효율도 높였다. 17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E-Tech의 공인 복합 연비는 17.4km/l이며, 1.6GTe 모델 역시 13.6km/l로 준수한 연비를 갖췄다.

가격은 하이브리드 E-Tech 3312만 9000원(친환경차 세제혜택 적용 기준), 1.6GTe 2640만 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